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우리는 과연 길 잃은 한마리의 양 /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일까요, 아니면 아흔아홉 마리 양 /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 형일까요.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 이번 주일 복음을 통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9/11 일은 9.11 테러 15주년 추념일 입니다. 당시 숨진 3천여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들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그 날을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세상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 2016년 9월 11일 주일 복음말씀 [(눅)연중 제24주일]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32<또는 15,1-10>

그때에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2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5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8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살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9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1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11 예수님께서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12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14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15 그래서 그 고장 주인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소유의 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17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 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18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25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26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27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29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31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32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9월 첫째주 공지 드립니다.

### 만남의 성경모임 - 9월 10일

조마오로 수녀님의 지도아래 루카복음 말씀을 나누는 만남의 성경모임이 다가오는 토요일 (9/10) 성당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은총 가득한 이 시간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9월 10일 토,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소망방 (사제관 건너방)

### (예비자) 교리 - 9/11 첫모임

예비자 교리가 다가오는 주일 9/1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자가 아니더라도 교리가 부족하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 **기초 교리**를 다지고 싶은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주 참석은 못 하더라도 교리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부담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하모 니+뜨락회에서 몇몇이 함께 공부하기로 했으니 혼자라 생각치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해요~

일시: 9/11일 주일 (교리 첫모임) 오전 9:30-10:30, 매주 주일

장소: 교육관 106호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 - 9/11

9/11일 위령미사 지향을 올리실 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

주임 신부님의 어머님께서 위독 하시다는 소식에 최근 신부님께서 급하게 한국에 다녀 오셨습니다. 병환중이신 신부님의 어머니 **김종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가족, 그리고 주임 신부님께 힘이 되도록 우리모두 기도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본당에서 처음 시작하는 **마르코 복음 성서모임**에 (창세기와 탈출기를 마친분들) 관심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에 모임 예정이며 청년 신청자 명수에 따라 따로 청년 모임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탈출기** 성서 모임반도 모집 중이니 신청해 주세요. 성서 모임으로 성경말씀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영화의 밤


이번 영화 모임은 다가오는 주일 (9/11) 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관람 시간은 회합때 결정 하겠습니다.

### 9월 생일 - 축하합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6일: 권창모 미카엘

9월 9일: 이미연 베로니카

###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mailto:harmonycatholic@gmail.com)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

김정호 이냐시오 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

Web: [www.oakcc.org](http://www.oakcc.org)